朝鮮日報
發行所 서울市太平路一街 朝鮮日報社

年頭辭
平和的統一의길로

政治勢力의總集結로 平和的統一獨立完遂
新年政局展望

國內態勢强化
經濟對策에愼重必要

政策分野는明確하게
國會議員等의覺醒을要望

半世紀屈辱前鑑삼아 國家守護를盟誓하자
李大統領 新年談話

民族精神을昂揚하야 大課業을完遂
李副統領年頭辭

思想的武裝을
申國會議長年頭感

團結原則確立
金九氏年頭所感

今日本紙四面

賀新年 己丑 退無進有 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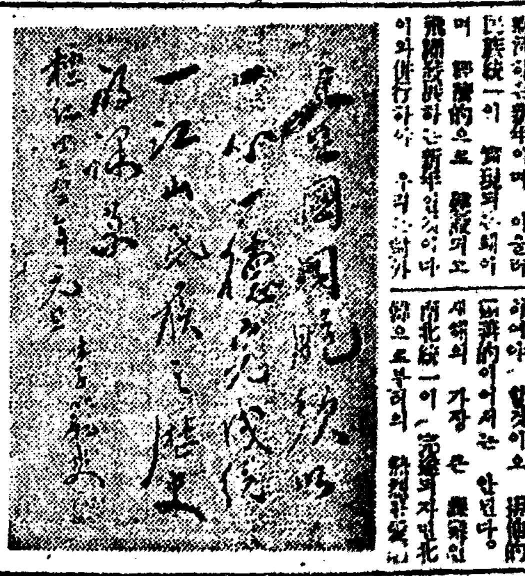
各種鐵物 非鐵金屬 金 銀 地金 製造販賣
三星地金製作所
閔泳鳳
서울市西大門區忠正路三街五〇
電話光化門(3)一六五九番

輸出入業
株式會社 天友社

株式會社 和信
株式會社 和信百貨店
和信貿易株式會社
興韓被服株式會社

南北統一의 新年

李國務總理年頭辭



統一의 方法은 矛盾對立克服

趙素昂氏年頭辭

課業은 今後에

金性洙氏年頭感

和戰與否의 重大問題

南京서 軍首腦部會議續行

香港에 難民殺到

國府揚子江警備强化

長江北岸을 中共地帶라 宣言

蔣氏抗戰決意

中共戰犯發表에 憤怒

國軍北平西南方에 出擊

北韓蘇軍撤退完了

朝鮮人委要求受諾

12月25日

新年을 맞은 政界動向

韓民黨

大韓國民黨

韓獨과 民聯

社會黨

政硏과 新生會

其他政黨團體

今後推移

北韓韓委攻擊

蘇聯大使辭表提出

反美調委서 共産國際五百發表

對換講和會議 來月英京서 開催

和'인'參謀長 捕虜

國聯威信失墜

和安保의 命令을 無視

日本의 再武裝與否

과駐美蘇大使極委에 問議

再武裝說 無根

美問議에 聲明

政府新年祝賀式

國會

우리의 敵은 누구인가 (上)

洪 鍾 仁

(朝鮮)

(親和)

(侵犯)

八回 一筆

社告

新年을 맞는 民族團結로 國運開拓

京城新藥社 서울市中區西大門路二街一 電話光化門(3)二一三八六 一九九九

天一製藥株式會社 天一藥房 社長 趙寅燮 서울市鍾路區

皮膚 泌尿 性病科 吳元錫醫院 서울市安國洞네거리 電話光化門(3)二一三三一番

高麗醫藥品 衛生材料株式會社 代表取締役社長 芮東植 서울市西大門區西小門洞四二番地 電話(3)一九二一 一八八六 一三〇番

朝鮮運輸株式會社 取締役社長 李載淳 서울市中區東子洞十二番地

朝鮮水利組合聯合會 서울市鍾路區世宗路一八九番地

南鮮電氣株式會社 代表取締役社長 張稷相

金華企業株式會社 取締役社長 金昌華 서울市中區東子洞二 電話本局(2)六六二一·一五三三番

朝鮮郵船株式會社 서울市中區南大門路五街壹番地 社長 金龍周 電話(3)四一九五一八 支店 釜山、仁川

太平商工合資會社 서울市中區太平路一街六一

三興實業株式會社 서울市中區太平路一街六一

暖房裝置 蒸氣機關 設計工事 水利水道 一般鐵材 工事請負 鮮榮工務店 서울市中區南大門앞 電話本局八四二七番

京城電氣株式會社 서울市中區南大門路二街五番地 支店 仁川、水原、春川

大韓金融團 朝鮮銀行 朝鮮殖産銀行 朝鮮商業銀行 朝鮮興業銀行 朝鮮貯蓄銀行 朝鮮相互銀行 朝鮮信託銀行 朝鮮換金銀行 朝鮮金融組合 聯合會

希望의 己丑年 새해는 밝다!

民族宿願·團結로達成
統一의門을열자!
튼튼한 "소"거름 躊躇은없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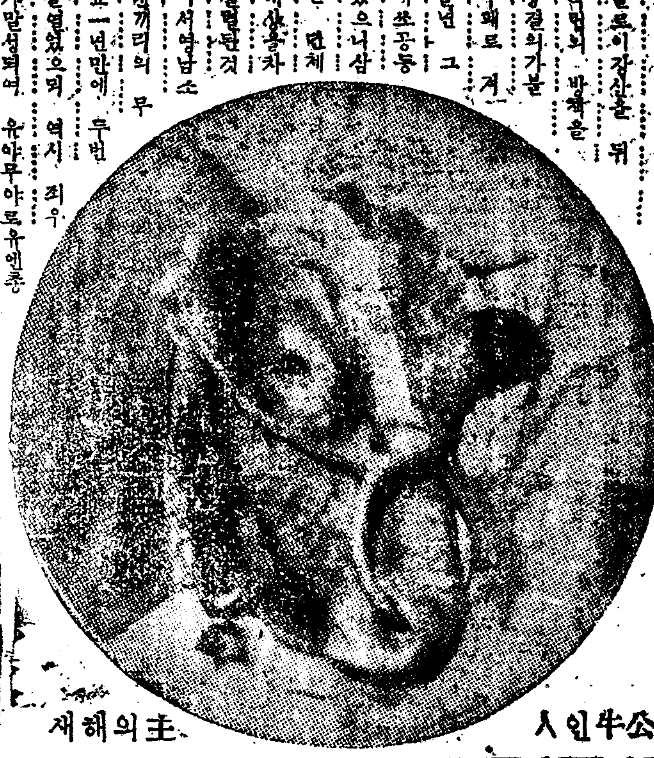
새해의날은 밝았다 삼천리이강산에 해방네돌의 해가밝아니 희망에넘쳤느냐 노고지며 영특하다 그금음날 제꿋이가선 대문잔앞에국기를높이달고 맑은물로씻은몸에 새옷을 가라입자 아롱진 때때옷에「일루지!」자랑하는 막내동이가「엄마 안져 "소"가 문안여머」못은말내문때 색색하고 다부진소가이나라새해의운명을싣고 희망의길을 늠름히걸어가는환상에잡긴다

조국의 통일! 그리고 아담한 자유의동산! 한뫼에 성킨 삼천만겨레가해방삼년 동안이 얼마나 애앓으게 애써마며는 갈망의 샛별이었든고 지나간 새해아츰마다오로지 이소원으로 감개 모새로웠고 겸의 모새로 가다듬어왔건만「하누님」섯위의손길은 다을라말락 감질만또꾸어왔다 그러나 방금 이아침엔지나간삼년의 꼬락이 결코뜻이없고 보람없는 역사의 숨때가아니였음을 뼈심에뇌우치는동시 새해야말로조국통일의 서광을겻잡느니라는 직감이 벅쳐온다 이웬일이가

해방된환희의 폭발로이강산을 뒤흔들기도바쁘게조선독립의 방책을 세운「모스크바」삼상결의가불현듯이 찬탁과반탁두패로 겨레를죽갈른 해방제일년 그해를넘어서자 다시미쏘공동위원회를 덕수궁에서열었으니삼상결의를 바뜰지않은 단체는 물러서라고협의대상을차별하는통에 창황히결렬된것이 제이년이다 나여서영남소요사건발단으로 겨레끼리의 무참한유혈을보고야말고一년만에 두번재 미쏘공동위원회를열었으되 역시 좌우차별의협의대상문제가말성되여 유야무야로유엔총회까지 끌어올린결과 작년에는끝끝내 三八선을격한대로대한민국이서고 유엔총인을언지비로서 세계적수평선우에 유일한 합법적 정부로통일의근거를다짐한것이다

이 파란을헤치고 곡절을넘어온 반자취를데관할때 결코숫수정문의 거름거리가아니라 뚜렷한 목표를향해서 앞에놓인 험난한 장해를밧차고걸어온것이 분명하지않는 가하물며 새해에버러질 다사다난한정국을아울러보매 통일의기회는 거이무르익어가는것을 눈앞에볼수없는가보냐 알고보니그동안 흘린피도 오직 통일을위한것이였다 뷰렬도 합침을위한 가다듬이였다 지도자들시비도시도 자들위칭도 오로지 통일의오늘을위한봉꿋이였다 모두가 애국의열혈을로뛨교힘과힘을내왔다 누구를원망하랴

이 새오일번(人間一番)으로 새해에는겨레의참된 심정을 서로알아주고 쓰다듬으면면 대동단결을노리고 각자의힘을짜내자 뭐니뭐니해야 결국 제나라는제힘에달렸다 독립도 제힘으로자유를고모 다너녀하사는 아름다운사회도 재힘밖에뉘가 있으랴 다서밑을소나무립을위한 세계각민족의뮤혈과 그성공탑을보라 불란서 독일 로서아의혁명을보라 일본의명치유신을보라 아니 방금 새역사를창조중인 중국의아우성소리를 올바로들으라 통일의길을가는 새해는밝었다 죽기로서운명의문을 내손으로열고야말지어다



새해의 主人公인 牛

「서울」의 새살림
새해마저 尹市長構想

올후한혀자와 창란한문화를가져온 三천만의중심지서울시는 밖으로는국제도시로서의 비약이약속된것이며 안으로는국도되면목과 시민의복지를위하야 새로운시책에 일대진전을 모치할으련 합렬것입니다 첫째식량의적정배급에 계속노력할것이나 이를위하야는 시민이 자진하야 육령안우전일활용 식량소비절약에 페전화협조가있기를 우망하는바이며 이후의二번 맞쪽으로 수숫돌게 위하착임에는 十五억원이 끝을하며 항편도로의복구만에 十억이상의 방 대한예산이필요합니다 교육방면에있어서는 적어도 국민학교 五六학년은二부재를버서나 정규수업을 하도록하고 학교건설도三十六학급을 연고 교실증축으로 六十九학급을연지 않고는 해결할수 없으니 여기도 막대한비용이들것입니다 교통문제에있어서도 휘발유전소비량의 약 三분지一은 서울시에서쓸 쓰뭇 하고있는실정에감하야 어떠한페계이분지 제우지않으면않될것입니다 한 예물을면전자의주배 갈은것도 불소평을 소만합 여러하며 수혜자실칙이라고 새각되는바입니다 다음은 월남동포를 필두로 한 전재동포의구호문제이고 이같은 모든계획을수행함에는 첫째 인재를연음이요둘재 재정이풍족키를요하는바 현하서울시정의 유일한재원인 세금의 증수에 시민들이협력하신다면 서울시의 전도는양양할것으로 밊는바입니다

白米一合六勺
서울45回配給

서울시당국의발표에의하면 오는一월一일부터 동十五일까지배급하는제四十五회식량배급량은 다음과같다

白米一合六勺 小麥粉一 合計一合六勺

建設의大動脈
보라·五萬勇士의苦鬪
半世紀만에차즌우리鐵道를살리자

기축(己丑)의 새해 새봄, 三천만의 가슴에넘치는 감격은 누구나한결같이새로운바있는데 그중에도이 해로서 개설 五十주년을맞이하게된 우리나라철도진(鐵道陣)의 감격은 한층 깊은바있었다 우리나라는바야흐로고때문명을바더드리기 비롯한광무(光武)三년즉 一八九九년가을九月 十八일 경인간의철도가개통하야 四천리강산을달리는 철마(鐵馬)의우렁찬 ...

제一성이울리어 금년은반세기(半世紀) 五十주년이된다 그동안일제의억울한침탈으로인하야 우리나라철도는 그들의대륙침략와 종점다리로—또는 우리의강로 착취반출(搾取搬出)하는 수송기관으로三十여년을 리용당하였으나 八·一五의해방의 종소래와함께 비록강로는뜻하지않은三八線으로 양단은되었으나 철도만은우리민족의동맥(動脈)으로서 四十여년만에 다시 우리의 것이되어진것이다 이때로 당하야 철도당국은 해방후 가진 애로(隘路)와 포란을 무릅쓰고 우리의 동맥을 환보한 그정열을 다사 가다듬어 해방四년 정권이양후 제一년인 금년에는 미군정시대에도불 수없는 ... 계로운포부를 실 ...

현합히망에불붓고 있는것이다 종래에도 철도의가장큰에로도 석탄과 각종자재이였는데 그로인하야 운전차량의 격감과 바람이불어들어오는 ... 을갖인재차가허다하야 그야말로「해방된조선」이 않이면볼수없는 비참하고초 ... 라한자태를 나타내어고있다 그러나지난해 十一월부터시작된 파손재차의수리와 각탄광에서의 석탄반출에 힘쓰고 피란(避難)제조를 부즈런히한관계로석탄사정 차량사정은 정차호전되고 있음뿐더러 계로운아제해하는 ...

터을계속하야 이문제만이라도 완전이 해결하려는정열이 五만 종업원에게 편만(遍滿)하고있는것이다 허기야 해방이후수차의 파업이버러져 철도에대한 일반의신망이 땅에떠러질번한일도 없지않었으나 남한四천一백九十三키로의 철도는 작년가을 모·련합이없다·그러라고 배급다운 배급한번 있은일없건만은 五만철도종업원은 굼주린창자 젖어진옷을 아른체도하지않고 국가와 민족의동맥을운전수호하기에 낮과밤을가리지않고 있는것이 ...

이와같이 정비와복구의 길을 매듭고있는 반면五 ...

시 그전의 빈약한처지를 면치못하고 있는것은 그야말로 한심한일이라고하겠다 그들종업원들의 수입은 미군정시대의봉급규 장에 구속된채 우리정부가 새로히 출발하여 처음으로 설을맞이하는 오늘에있어서도 그것과 아 ...

국으로부터 철도에대한적절한조치가 있을것으로에 상되나 새해새봄을 맞이하는 오늘아침에도 장갑(掌甲)하나 완전한것을 개지않고 기관차의제동기(制動器)에 매달리고있는 젊은기관수가 대부분이라는것을 세상사람은알지는못할것이다 그나그뿐인가 서울부산간의 객차를정비하기위하야 얼어붙은「호—스」를쥐고 밤을새여가면서 쓰래기와먼지를치어버리는 열차구(列車區)의 정비계원들의노력은 과거의모든 불미한일을 일소할일이라 건국도상 눈에 띄어지않은 숨은—그러나없어질수없는 불멸의자최를 남기고있다고하겠다 이러한숨은노력이야말로 우리위한도가일 ...

그예날五十년전—기우러저가는 조선의 강로에처음으로서울 인천간의 낭개미 같이적은 기관차의수레바퀴는 이러한숨은 피와땀위결중으로서 오늘에는당시의四十키로부터 남북양지방을합처 八천八백五十키로발전한것이다 비록양단은되었으나 이곳김은반세기외 금자탑(金字塔)이 이루어자는 이해를맞이하야 남한五만여종업원은 남한四천二백九十키로의정복구에대한 결의를다시새롭게하고 있는것이다

囹圄에도새해의기쁨
五百餘囚人釋放
元旦黎明期하야全國各地서

다사다난하던 무자년을 보내고 기축의 신년을마지하는 기쁨을영외몸에게까지 고르맛보게하기위하야 정부에서는 초하로새벽해살이 비치무렵을 기하야 전국각형무소에서 五백五十여명의 수인(囚人)을석방하고저 대통령의 특명으로 은전을열기로되였다한다 이번석방될 五백五十여명은 과거三년간 형무소에수용된 재감자중 개준의 정상이 가장현저하고 형무소소측을 잘준행하였으며 애국적사상이 뚜렷한자라는바 이에대하야 三十一일 이(李)법무장관은다음과같은 담화를발표하였다

우리대한민국정부가 국제적으로 승인을 어든동시에 여러가지법무행정에있어 모든수준을높여가고 있는이때 이번특히새해를 마지하여 대통령각하의특별한신생각으로 제소자중의 모범적인자에대하여특별한 은사를나리게되어五백五十여명을 출옥시키어 우리신생대한민국의 건전한일군이되도록 해방하게된것이다 이번 은전을받은 五백四十여명은 이거룩한뜻을 잘받들어야할것이며 와 일반사회에서는 이들에게온정을 기우려 주기를바라마지안는다

中部署皆勤者表彰

중부서에서는 一년간개근한 군자(金鋼㕍)경위외 一二명과 우량경관(鄭俊采)경위와 一三명에게대하야 각각 표창장및 금一봉을수여하였다한다

水原에大火

[水原] 삼십일일아침일곱시 수원종로할달로열가시편지 경성전기공업사창고를비롯하여 五점포가전소되였으며 부근七세대에도 피해가많았으며 손해액은 약七백만원이라한다

各部長官의任命式擧行

三十一일 오전九시반대통령실에서는 각국무위원과 가부차관에게 사명장을수여하는임명식이거행되였는데 이석장에서이(李)대통령은다음과같은 관설을하였다

오늘이러한 자리가매우드저진것은 未安히생각하나 그러나 여러분과같이이時間을가지게된것을榮光으로 생각한다 우리政府가樹立된後 一般國民의 絶對的支持와信賴를받어 여러분은 우리國家와民族을爲하야 恒常犧牲的精神을갖이고 奮鬪努力해온것은彼此에感謝하는바이며 如何한 일이 있든지 우리는다만 國家와民族만을爲하야한몸을바칠覺悟로新年에도 꾸준한努力이있기를바라는바이다 山에오르면또山이있어갈수록泰山이라는것을깨닷고重任을다해주기바란다

(사진은任命式光景)

人口問題硏究次 高凰京女史渡美

전사회부부녀국장이든고황경(高凰京)박사는금번 미국사회연구부(社會硏究部)의전후세계경제사회문제연구원의 한사람으로초빙을받어 신년초에 도미하게될것이라한다

昨年入超44億
密輸摘發은百20件

仁川貿易

[仁川卅一日發] 작년一월부터 十二월까지一년간 해외무역에 있어서 인천세관에 나타난통계를 보면 ▲수입六십八억一천三백八십二만六천六백三십六원 ▲수출二십三억四천四백二십三만九천九백四십원으로 결국四십四억六천九백五십八만六천六백九십六원 이라는막대한입초추자를나타내고 있는데수입품자는 생고무 신문용지 양자 면료등이고 수출품은거이 해산물이라한다그런데 동세관에서 동기간중적발한 밀수건수는도합 一백二십건이다하는바 밀수된물자는 밀수출三천四백만원 밀수입九천九백만원합계 一억三천三백만원이라고한다

齊城得粮間「헌넬」開通

지난十월一일부터三개월예정으로 착수하였든齊城—得粮간의 헌넬「隧道」공사는 반란사건등으로지연될뜻도 하였으나 교통부관계당국의 적절한시공지휘와 노무자의꾸준한작업으로 드디여지난廿八일로서 동공사는 완료되고卅一일은 시운전을하고 내일부터 개통되리라한다

生産復興促進
重要鑛山에優先送電

전력부족으로 휴업내지 반휴업상태에빠진 석탄중석등 중요광산의 작업을 복구시켜 중요광물생산을 확보하기위하야 상공당국에서는 남한 九대광산에 전력을공급하라고 남선전기회사에 긴급명령을 지난二十七일밤부터 하였다 금번의긴급배전은 一월一일부터 三월말일까지 매일二十四시간 타부문을희생하고라도 공급될것인데 광산별 긴급수전량은 다음과같다

▲제一순위
三陟탄광 三〇〇〇키로
上東광산 一〇〇〇키로
和順탄광 五〇〇키로
固城탄광 三〇〇키로

▲제二순위
丹陽탄광 一五〇키로
蘇山탄광 一〇〇키로
吉原탄광 五〇키로
紋淵탄광 一五〇키로
達城탄광 五〇〇키로

새해의선물로 家庭特別送電
任商工長官談

남한전력사정과 정초의 임시배전에관하야 三十一일 임(任)상공장관은요지다음과같은 담화를발표하였다

금년五월十五일 이북단전이래 남한전력은극도로 악화되어 남한에서는그때 당부에서는그대로 ... 있오며 현재남한보유발전은 약 二十萬(키로왔트)이오나 남한의일지재조건가 다에의하야 현재공기청균 발전량은 七만「키로왔트」에 미만입니다 당부에서는 이악속한정책을 채국한국가재정에 진급히 수재의 눈기관과 생산공장에송전하는동시에 남은전력을인 발생산공장에 가정에공급 이때전보저 작년도에一억원의 국고보조로소위三平 제공사로 착수하야 명춘에완료될예정입니다 그때 고이지음목한에서 초하로 로기하야 남한에부상으로 송전한다는말이 항간에유 포되고있오나 이는허위선전에불과한것입니다 하위 낭설에 현혹되지말고 자숙하야주시기를 특히요청하야 마지않읍니다 정변은많이하야 국민제위에게 성심으로보내는 선물은년 말년시의 각가정특별송전입니다 수요가제위는예측 실을 발휘하야 一호二등 정도로 절전을명심하야주시고 국민제위의 희망의 새해를부스러히 맞이하시옵소서

閻週約節費消穀糧
正月中旬頃부터實施

서울시에서는정부방침에 순경우리에단 주일·동안 양곡(주로 쌀)소비절약강조주간 실시운동을 적극적으로 전개할터이며 앞고한다이 주간중에는 밀주금지 외 배 기타 미곡원료로 하는음식물의 제조판매를 금지하며 음식점 당 여관 요정기타 일반 외원이면 제공금지 가정에서의 혼식배속식며 행 유력인구적발등을 적극적으로 취진할터이라고 한다

配給所는 一日만休務

서울시당국의 발표에의하면 서울시내양 곡배급소는 시미식생활과 밀접한관계가있음으로정월 一일만휴무하고 二일부터는정상적으로 집무한다고

政府機關從業員에 現業手當을支拂

금번국무회의에서는 정부현업종업원에게 시현업수당으로 기본급료의 二할五부해당을 지불하기로 결정하였다한다 꿈으로도는 옳다고에도 좋은 망하는것은 누구나 갈다하겠지만 특히 정부기관의 현업종업원들의 생활은 극도로 ... 차가많이 국가건설에지장은 장에가되고 있음 에비추어 이사정을 마소 하고 참작하고저 三十一

買穀二百50萬石!

30日現在

매입현재양곡매입량은 二백四십九만八천五백 二십七石으로 목표량의三三·三%이다

서울 二、六二八石(八七、六%) 京畿 五〇四、八二九石(三〇、二%) 忠北 一二七、一五〇石(三九、七%) 忠南 二八七、三〇四石(三五、二%) 全北 四五七、四一六石(四四、〇%) 全南 三〇〇、八五九石(二四、一%) 慶北 三九一、八九三石(三二、六%) 慶南 三六六、七二三石(三八、二%) 江原 五九、七二二石(三八、九%) 計 一、四九八、五二七石(三三、三%)

오늘의라디오

밤 ▲一、三〇 民衆 ... ▲五、一五 ... ▲五、三〇 ... 이시간 ▲六、〇〇 成人敎育時間 ▲六、一五 對談 ▲六、三〇 年頭辭 ▲七、三〇 뉴—스와뉴—스 ▲八、〇〇 座談會「新年度」 ▲九、〇〇 新年放送「꼬주머니」 ▲九、三〇 合唱과管絃樂

◇朝光正月號 (中編特輯) 서울市太平路一街六一 朝光社發行 定價二百圓
◇새한민보 서울市太平路一街 새한민보社發行 定價一〇〇圓

短篇小說 눈보래 (1)
朴榮濬作 金熊超畵

쓸 기사를 다쓰고 나잔때야 때던 코—스이기만하면 편집마감 시간이 아직 몇집분 남아있다해도 공연히 궁금적이 문벽어리없다。 일즉암치사를 나간대야만나기로약속한사람이 있는것도 아니지만 혹시 길가에서나 단골 자정에서 아는친구를 만나 잡담을하다가 기분내는 친구의 입이 떨어지는 돈로 빈대떡집을 차지가는것이 고작한 일이지만 그래도 그코—스는 하루도 빼주가없으리 만큼 이미 습관화 되였고 또 그 생활을계속하기위하야 신문 기자를 그만두지 못하기나하는것처럼 생활의 가장중요한 부분으로 되어있는 것이다。

벌써 거이 두시가 다 되였다。 일손이 빠른 기자들이 이미 자리를떠나 사무실은 빙빙돌때 정경부(政經部)의 기자 우혁(渦革)이는 샤프 펜실을 양복 웃주머니에꼬즈면서 의자를 뒤로 떼밀고 일어났다。 그리고 새로운 뉴—쓰를 서로교환하는 사내의 잡담시간에도 참견할 생각을 아니하고 오—바부터 멀쳐입었다。

웬지 모르게 이날은 유달리 따분해서 사내 공기가 싫었던 것이다。 나갓만 그래도 친구들에게 먼저 나간다는 인사도 하기가하여 머리를 숙인채 나오라고 할때 「고우현씨 전화요」하고 마무실이 떠들석하게 불또는 소디가 마치 예혼자서면저 나가느냐는듯이 뒤에서 그를 잡아 단녀었다。

우현은 어데서 만나자는 고마운 친구의 전화이기를 바라며 전화통에로 가서 수화기를 들었다。 혹시 오늘의 하로를 윤택하게해줄사람이라면 혹깃번부터 마음은 부드럽게 해주어야 한것이며 그는 원인 모를 마음의 침울을 죽여가며 「여보세요」하고 진찬하게」말을 건너었다。

그러나 대답은 뜻밖에도 여자의 음성이었다。 그리고 T다방에서 꼭만나달라는것이었으나 우현은 약간 실망 아니할수 없었다。 인상이 나쁜 여자여서가 아니라 차값이라도 벌사람은 갈데없는 자기라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이었다。 자기 주머니를 텁텁 여유가 없을때라도 비상조치로 준비해가지고 다니는 배원짜리 한장만이 주머니속에 들어있음을 계산할때 더욱 그러했다。 그러나 그러한 타산이 그의 우울을 부채질해주지는 못했다。 우울을 덜수있는일이라면 그만한 돈이 그의 행동을 구속사키어본 일이 아직까지는 있지않았다。

우리반도우리南韓

英國映畵 銀映社 代表 柳濟栢 專務 柳良煥

서울市鍾路區鍾路一街一九 서울市被服工業組合 電話光(3)三九八五番

朝日釀造株式會社 社長 金永基

中央酒造株式會社

서울市中區茶洞九四 永信紙業社 代表 權龍植 電話(2)六七七二

高麗書籍株式會社

百貨店 東和 電話本局(2)三一二一

圖書出版 月刊雜誌 宣文社 「모던朝鮮」 社長 尹景燮 營業部長 李完珪 編輯部長 池金松

서울市中區乙支路一街一〇〇〇番地 第一紡績公社

朝日運輸倉庫株式會社 (舊朝日組) 社長 金炳哲 支配人 李弼榮 서울市西大門區萬里洞一街四一 電話本局二二一五〇、二二一五六 二二一五七 支社 仁川 釜山 永登浦

輪轉機械 印刷機械 製作修繕專門 松田機械製作所 代表 全忠信 서울市中區桃洞壹街七三番地 電話本局(2)四五

社會員會 서울火災海上保險株式會社 韓國火災海上保險株式會社 朝鮮火災海上保險株式會社 新東亞損害保險株式會社 國際損害再保險株式會社

서울市鍾路區西大門路一街七番地 朝鮮고무工業組合聯合會 電光 三五七五 一八四三 二八五四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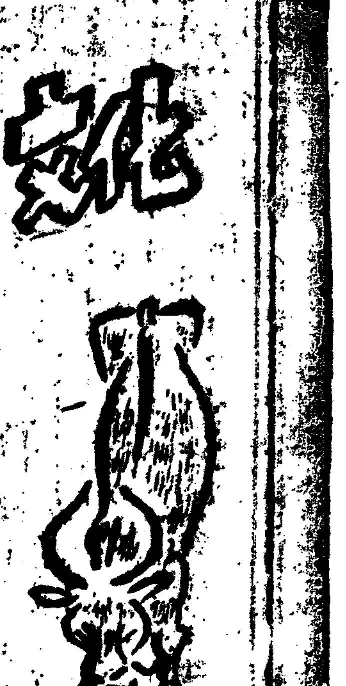
서울市中區會賢洞一街一九四 朝鮮農會 副會長 洪淳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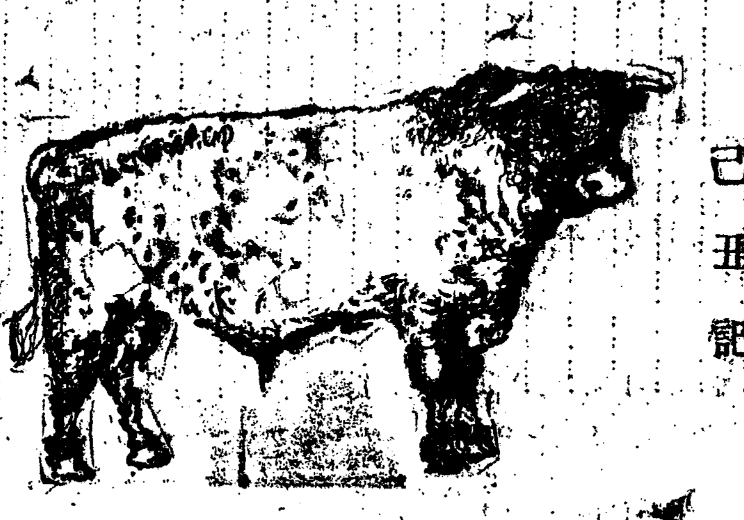
民族文學理論의 樹立

現階段의 根本命題

洪曉民 (一)

一、問題의 提出





己丑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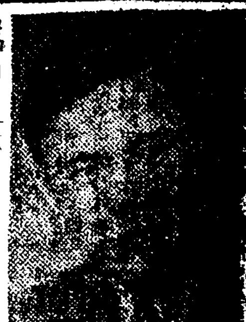
金煥基

美國通信 紐育의 畫廊 (1)

金載元

詩 새해에

—조국에게 주는 노래—



婦人 女人과 讀書

趙實景

어린이

소 이야기

올해는 소 해 입니다 이제 소의이야기를 좀하지요。

우리들이 살아가는 데 다른 짐승의 덕을보는일이 많읍니다 말은 우리를태워주고 짐을 날라주고 여울러에서 용감이싸우며 개는집을 지키고심부름도 하여주곤 합니다 그러나 그중에 소처럼유용한 짐승은 또 다시없을것입니다。

소는 모리저에서 짐도실어날르지만 그보다소가우리에게 가장도움이 되는것은 농촌에서 농사일을 하여주는것입니다。만일소가없다면 우리의 농사일은 얼마나 더딜것인지 몰을읍니다。

우리가 살아 나가는데 소가 경제적으로나 종교상으로나 빼지못할 인연이있다는 것은 동양이나 서양이나 다 한가지일것입니다。이소가신성하여 하나님처럼 존경을받은 것은 이미 수천년전「애집도」의 옛날이야기와 고대유물(古代遺物)에도있읍니다 그리고 불교에도 소는 대단히 존귀한것으로 되어있읍니다。

지금도 불교를 신성히 섬기는 인도의 불교도는 암소를 아주 신성한것이라고떠받들어 소고기를먹는것은 누구든가리지않고 가장나쁜죄라고 치고있읍니다。

그래서 한편 같은인도에 많이있는회교(回敎)를 믿는사람들은도야지고기를먹는것은 절대로 엄금되었기때문에 이회교도가 며 늘의 했읍니다。그들이 인도를고도의 소를잡아먹었기때문에 서로싸움이일어나 피를흘린일도 여러번있었읍니다 예수교에서도 소는 정력(精力)의상징(象徵)으로서 중히여기고있읍니다。

그리고 우리들이 잘알고있는 칠석이야기에 견우(牽牛)직녀(織女)라는것이 나오지않습니까? 이만큼소는 사람들에게 여간존경을 받고있는것이아닙니다 그러나그것보다 우리는아닌것을 여러분도 잘아실줄압니다 그만큼소는 우리에게가깝고 여간신세를 끼쳐주는 짐승이 아니니까요。

그런데 여러분은 소의 웃니가 왜없는지 아십니까?그것은 옛날에 말이 갖고있던 뿔과바꾸었기때문이랍니다。본래 아주옛날에는 소에게는 웃니가있고 말에게는 뿔은 있었지만 웃니는 없었답니다。그대신 뿔은소가갖지못했지요。

어느따뜻한 날 소와말은들에서 풀을먹고 있었읍니다。그런데 소는어째욕심이 많았던지 순식간에그일저리의 풀을 다뜯어먹어버려 나중에 말이 먹을풀이없어지곤 하였답니다。아모리 말이빨리먹을래야 웃니가없으니 하는수 없어야지요? 그래서그날은 말이한 꾀를생각해내었읍니다。

「여보 소영감! 당신은 참멍신이오。나는풀을 못먹어서 당신에봉이 없단말요。웃술구로!」

전두 쉽새정이가 못한소는 대답의 꾀를 내고한편 부고말기도 해서 어젯술을 물맛읍니다。그러자 말은 다시 말하였읍니다

「여보 소영감 그러 좌로 별것도 없지않소? 정 그렇게 심화 할라면 영감하고 나하고서 이나 내 뿔을 물어이다。」

소는 말을 듣고 어잘 좋아 하지 않았읍니다。

「응 정말요?」

「그런데 말이요 그것은 뿔이기는 뿔이지만 그대신 나는 웃니가 없으니 당신의 웃니나를 줄수없을까요?」

하고 말은 말하였읍니다。

소는 미련합니다。그까지 눈에보이지 않은것쯤면 어때 하고 생각한소는 말이 이야기하는대로 듣고말았읍니다。

뿔을 얻어가지고 한껏기쁜 소는 천지할 바냥풀을 떠웠읍니다。그랬더니 얼마안있다 소는 가슴이 앓아 펄펄 뛰었읍니다。

그것은 웃니가 없는것도 물론고 그대로 씹지못하고 먹었기 때문입니다 소는 수없이 그것을 다시 내어서 조금씩씹어 넘기지 않으면 안되었답니다。

동시 소

任元鎬

소야
듬든한 소야

볼이랑 여름이랑
거죽으로도
풀 뚱뚱 불도 산으로
해저 달리누나

◆

소야
의젓한 소야

매 맞으며 일해주고
짐메달려도
눈만 끔벅 한숨으로
풀어 버리누나。

◆

소야
고마운 소야

꽃굴레를 씌워 주마
굴게 씌워 주마
콩을 콩을 삶어 주마

—한동안 소해를 맞으며—

동화 (上) 꼬마 토끼

이영철 지음

해볕은 양지 바르고 진달래꽃 오랑캐꽃 민드레 할미꽃 따위 꽃들은 피고 딸기하무는 바람에 살랑살랑 날리고 여름 모든 산새들은 이 가지 저 가지로 날아 앉으며 즐겁게 노래하고 앞으로는 맑고 맑은 시냇물이 흘러 내리는 인가에서 좀 떨어진 한적한 산골자기에 토끼네 마을이 있었읍니다

토끼네 마을에는 굴구멍 하나마다에 한 가구씩 여러 가구가 살아 가고 있었읍니다

그 중에 한 토끼네는 엄마 아빠 아들 첫째 꼬마 이렇게 넷이서 재미낳게 살아 가고 있었읍니다

어떤 날 엄마 토끼가 뒷뜰집에 말을 갔다 깡충깡충 뛰어 들어 오더니 꼬마 토끼를 불러 놓고

「애 꼬마야 어 아까 저 커다란 택멍이를 끝고 앞산 진달래꽃나무아래 숨어서 맛있게 맛있게 먹고 었더라니 그건 어디서 났니?」

하고 물었읍니다

그 말을 듣더니 꼬마 토끼는 낯빛이 좀 붉어졌으나 그대로

「앞집토끼 할 머니가 주었어!」

하고 아주 천연스럽게 대답을 하였읍니다

「정말 ? 너먹으라고 주더?」

「응 주었어 먹으라고」

「요놈!」

「정말이야 !」

「앞집 토끼 할머니에게 물어 볼까?」

「물어 봐요 먹으라고 준걸」

「요놈! 내가 다 알고 물어 봤는데 거짓말을 하지 하 고놈! 앞집 토끼 할머니가 그래! 배가 앞집 할머니 나간 새이 몰래 뽑어가 가지고 나왔지? 그렇지?」

「으응 그렇다구」

「아니 요놈아 배가 안 그러더니 깡땡이 났니? 그게 하고 싶으면 달래서 먹든지 하지 남의 것을 몰래 훔쳐 먹다니 그건 도둑놈이지 뭐냐? 응」

하고 엄마 토끼는 매채를 들고 꼬마 토끼를 때리려 하였읍니다

때 마침 앞집 할머니가 들어 오며 뭐 어린 토끼가 그만 걸 무얼 그러느냐고 자꾸어서 엄마 토끼는 매채를 놓고

「애 꼬마 토끼야 이담엔 다시는 그러지 마라 너 이담에 또 그런 짓을 하면 그 땐 혼난다 이번에는 처음이니까 그냥 내버려 둔다 알겠니?」

하고 잘 타일러 주니까

「응 다신 안 그럴 께」

하여 그날은 그걸로 그쳤읍니다

그런데 이튿날 저녁밥을 먹고난 때였읍니다

지평선 아래로 떨어지려는 해는 다색 노을을 물들여 놓고 있었읍니다

「엄마 나 요것 봐라!」

하고 꼬마 토끼가 조그만 자물쇠를 하나 내보였읍니다

「고것 참 예쁘다!」

하고 아빠 토끼는 잠깐 말하다가 불현 듯 생각이 난 듯이

「애 꼬마야 너 그걸 어디서 났니?」

하고 물어 보았읍니다

「아랫 동네 옥토끼가 주었어!」

그 새끼 는 대단히 귀엽게 생겼다고 해서 옥토끼라고들 불렀읍니다

「정말?」

「정말야 주었어!」

「요놈 거짓말이지?」

「아냐 정말 주었어!」

「하자 옥토끼 아니 볼 때 몰래 집어 왔지?」

「아냐 주었어!」

「꾀리 재비」와「암소」

李光洙 참회록 나의 告白
(附)親日派의 辯
四六判·豪華美本 값 三八〇圓 送料二〇圓

問題의 書 再版出來!
李光洙는 親日派나 愛國者나 果然 그가 親日派라면 무슨까닭으로 親日派가 되었던가 이冊은 제공하야 주고 民族正氣의 ... 文學者로서 民族運動者로서 그리고 所謂 親日派로서의 過去의 絶大한 苦悶과 苦惱의 事實을 ... 赤裸裸하게 吐露한 懺悔告白書인同時에 四十年間 ... 朝鮮獨立運動者의 列傳이요 그만 反民族者로 指目받고있는 數十萬名親日派의 代辯書이다
發行所 春秋社

學生募集 男女共學
文理科 …
豫科 …
入學試驗期日 一九四九年一月九日
入學試驗科目 …
서울 英數專門學館

大昌洋行 化粧品部

오늘저녁을愉快히
文化映畫
●머조리艦上降伏調印
●世界뉴―스
午前中特別上映 (自一日至十日)
學生歡迎
1日부터 5日間 明洞劇場

새별樂劇團 新正大公演
南海林作·南實演出
東闕舞台文化社亞虎起企畫
上·前後 全篇
正月1日부터 (每日連續公演) 團成社

K.P.K 新正大公演
金海松樂團
金海松構成·音樂
音樂詩「歌手가되기까지」
金海松作·音樂
어프레타「金과銀」
金海松樂團
自電暖房完備
1月1日부터 中劇

國劇社 創立三週年記念新作發表會
民族오페라 新羅의 달 五막
新正1日부터 市公館

꿀로만든 만나빵
서울明倫洞 만나莊

月宮
天下泰平 芳香佳味